

훈민정음의 자소 결합 방식과 구조 연구

김상태(청주대학교)

1. 서론

문자언어(written language)는 음성언어(spoken language)를 기반으로 언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언어 사회에서 관습화되고 제도화된 쓰기체계이다. 음성언어는 선형적인 연속성을 갖지만, 문자언어는 부분 부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구분의 단위로서 명확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는 형태소, 단어, 구, 절 등이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모두 단어를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문자는 단어를 쓰는 것이 목적이며, 일정한 의미를 일정한 문자에 결부시키는 것이 그 기능이다. 이러한 문자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서법체계, 즉 정서법(orthography)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성언어에 비해 변이가 적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Saussure¹⁾ 이후 오랫동안 음성언어를 일차적인 것으로, 문자언어를 이차적인 것으로 보아 문자언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큰 흐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張素媛(1986:198-199)은 “음성언어일 경우는 ‘억양, 강세, 휴지’와 같은 초분절적 자질이나 발음이 중요한 반면에 문자언어에서는 ‘구두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음운론의 층위에서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논의는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향천(1998:301)은 전통문법은 문자언어의 문법이라고 말하고, “음성언어가 문자언어로 전사될 때 많은 것을 잃으

1) Saussure(1959:23-24)

Language and writing are two distinct system of signs; the second exists for the sole purpose of representing the first. The linguistic object is not both the written and the spoken forms of words; the spoken forms alone constitute the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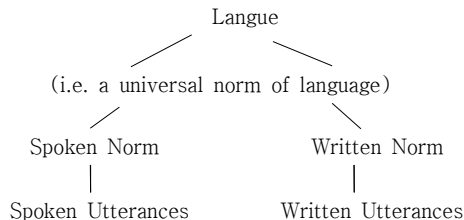
며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의 성조, 억양, 강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민현식(1999:19)은 ‘발음과 표기’로 구분하여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지영(2004:5)은 “동일한 분절음의 연쇄라도 길이, 음높이, 크기 등 운율에 따라서 문법적, 화용적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Vachek(1989)은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의 단순한 대역기호가 아니며 전혀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음성적으로 발화될 때는 ‘음성언어’가 되고, 씌어질 때는 ‘문자언어가’가 된다고 하였다.²⁾ 고영근(1991, 1993)은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서사어, 구두어’로 구분하고, ‘서사어’ 문법이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성규(1991:70-72)는 ‘음성언어층위’와 ‘문자언어층위’로 1차적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것을 ‘1차 실현’과 ‘2차 실현’으로 구분하여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뜻을 구별하는 문자언어의 최소단위를 자소(字素, grapheme)³⁾라 불러 자소론(字素論, graphemics)이라는 분야를 설정하여 문자와 표기법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음성언어의 최소단위인 음소(音素, phoneme)와, 그에 관련된 제반 음운현상을 다루는 음소론이나 음운론과 가장 밀접한 유추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문자발달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발달된 문자인 표음문자이다. 그런데 이 표음문자는 대체로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일본의 ‘가나(假名)’와 같이 음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음절문자와 한국어와 영어처럼 그 언어를 표기하는데 쓰이고 있는 자모자(字母字, alphabet)와 같은 음소문자이다. 이 자소체계⁴⁾ 하나의 음소에 하나의 문자 단위를 대응시

2) Vachek(1989)의 서문에 있는 도식



3) 자소(字素, grapheme)에 대한 명칭으로는 서기소(書記素), 문자소(文字素) 등이 있다.

키는 체계로서, 한글이 이에 속함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은 그 운용에 있어서도 훈민정음의 '初中終聲合而成字'란 규정에서 나타나듯이 실상 음절 문자(音節文字)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글의 최소 단위는 자소이다. 이 자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면 한 개의 글자를 형성한다. 영어를 포함한 라틴계열의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글씨로 표현될 때 일정한 크기로 쓰이지만 한글은 2개 내지 5개의 자소들이 모여서 일정한 크기의 문자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문자의 개념을 '음절(音節)'과 혼용해서 쓰고 있다.⁵⁾ 그동안 훈민정음의 연구에서도 '음(音)'과 '자(字)'를 동일시하여 연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Ledyard(1998:195)는 “자(字)'와 '음(音)'의 용어상 구별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인 진술로 보일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⁶⁾라고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말과 글은 독립적인 언어 층위로서 시각적 형상의 기능 단위인 자소와 음성의 기능 단위인 음소를 전혀 다른 독립된 체계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음소들의 결합인 '음절(音節)'과는 다른 자소들의 결합인 '자절(字節)'이란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과 결합방식과 구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고영근(1993 : 51)은 “문자체계란 말 대신 자소체계를 선택한 것은 서사어의 기본 단위가 음소에 대립되는 자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취하여진 조치이다.”라고 언급하였다.

5) In most cases, there is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since the meaning is usually evident from context, but a terminological distinction would have given their exposition a clarity commensurate with their theory.(Ledyard 1998:195)

6) The lack of any terminological distinction between “letter” and “syllable” occasionally resulted in seemingly illogical statements, such as in the announcement of the alphabet of 1443/3.

2. 자절(字節, graphic syllable⁷⁾)의 정의

자소에 대한 견해는 음운과 문자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서로의 견해가 엇갈렸다. 홍승우(1981:5-6)는 문자는 음운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따르는 2순위의 기호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타율적’(또는 음소의존주의) 자소론이라 하고, 문자는 음운과 마찬가지로 1순위의 기호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자립적’(또는 “음소 무의존주의”) 자소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타율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소는 하나의 음소와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첫째, 하나의 음소를 표기하기 위해 자소가 여럿이 어울려 사용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자소가 하나의 음소를 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소 /ㄱ/을 표기하는 자소 <ㄱ>은 자소 <ㄲ>이 두 개 모여 하나의 음소를 표기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중세 국어의 병, 뽕, 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기 다른 자소가 하나의 음소를 표기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낫, 날, 낫-, 낫, 날, 낫’ 등을 관찰해 보면 중화 위치에 오는 ‘ㅅ, ㅌ, ㅆ, ㅈ, ㅊ’ 등은 모두 서로 다른 자소이나 하나의 음소 /ㄷ/을 표기하고 있다.

한글과 같은 음소 글자인 영어의 경우, /i/라는 하나의 음소는 ee(feet), ae(Caesar), eo(people), ea(beat), ei(deceive), oe(amoeba), ie(relieve), i(ravine), ey(key), ay(quay) 등에서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소로 표시되는 경우가 흔하다(趙成植, 1990:529). 또 음소 /s/를 표기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sit의 ‘s’, grass의 ‘ss’, cent의 ‘c’ 등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하나의 자소가 여러 음소를 표기하기도 한다. 가령, 어떤 명사의 기본형이 ‘꽃’이라고 분석되면, 이것이 주위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에[꼬체]’의 [꼬ㅅ]와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놀이], 꽃만[꼰만]’의 [꼰]

7) Coulmas(2003:62)에서 speech syllable과 graphic syllable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oulmas는 graphic syllable을 written syllable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과, ‘꽃과[꼴과], 꽃다발[꼴다발], 꽃밭[꼴뻔]’에서는 [꼴]으로 실현된다. 즉, 하나의 자소 <ㅈ>이 연음과 음운동화에 따라 /ㅈ/, /ㄴ/, /ㄷ/ 등의 여러 음소로 표기하고 있다.

體系 \ 區分	文字體系	音素體系
初聲(子音)	ㄱ ㅋ ㆁ ㆁ ㄷ ㅌ ㄴ ㄹ ㅂ ㅃ ㅍ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ㅎ ㅎ ㅇ ㄹ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37자)	ㅂ ㅅ ㅈ ㅊ ㅌ ㅎ ㅍ ㅌ ㅋ ㅊ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22음소)
中聲(母音)	ㆍ ㅡ ㅣ ㅗ ㅛ ㅜ ㅠ ㅑ ㅕ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29자)	ㆍ ㅡ ㅣ ㅗ ㅛ ㅜ ㅠ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19음소)
終聲 (語末子音)	ㄱ ㆁ ㄷ ㄴ ㄹ ㅂ ㅃ ㅍ ㅑ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26자)	ㅂ ㆁ ㄷ ㄴ ㅌ ㅓ ㅓ ㅓ (8음소)

위의 문자체계와 음소체계의 비교표에서 보면, 문자체계 초성이 37자인데 비해서 음소체계 자음은 22자이고, 문자체계 중성은 29자인데 비해 음소체계 모음은 19자이며, 문자체계 종성은 26자인데 비해서 음소체계 어말자음은 8자로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위의 문자체계 초, 중, 종성에서 음소체계 자음, 모음, 어말자음으로의 음소선택에서 제외된 문자가 있다.

8) 李基文(1972)의 견해를 따랐다.

말자음은 8음소 설정에서 제외된 것은 21자이다.

이와 같이, 음소문자의 측면에서 음소와 문자 사이의 관계가 1대1의 대응(one-to-one correspondence), 1음소 1자(one letter per phoneme)라 함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즉 하나의 음소를 표기하는데 몇 개의 문자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의 문자가 여러 음소의 기호화에 쓰이기도 하여, 많고 적음은 있으나 어그러지는 예를 흔히 보는 것이다. 이는 표기체계의 역사성과 음소체계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음소와 자소의 대응이 되지 않는 것⁹⁾은 단지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의 2차적 산물이 아닌 하나의 언어체계로서 독립된 언어 단위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고영근(1993:14)은 음운부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소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李丞宰(1990:10)는 “음운과 음성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字素(grapheme)와 音韻(phoneme)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소는 언어를 문자화할 때의 단위이고 음운은 음운론적으로 기능하는 최소 단위인 바, 서로 혼동되어서는 아니 될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둘을 혼동한 논의가 많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음절(音節)’이 음의 연속체로 음소의 결합으로 정의된다면 음성언어의 용어이다. 음절과 글자의 문제는 철자법으로 모아쓰는 단위와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음절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기법의 특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현대 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표기상의 초성에 실제로는 아무런 음가가 없는, 하지만 종성으로 쓰이면 음가가 있는 자소 ‘ㅇ’을 들 수 있다.¹⁰⁾ 즉, 음소와 자소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문자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자 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훈민정음의 문자가 당시의 현실음을 그대로 반영한 음소문자가 아니고, 한자

9) 한글의 자소와 음소의 대응관계로 최세화(1970), 김민수(1995), 민현식(1999)이 있다.

10) <http://en.wikipedia.org/wiki/Hangeul>: When a syllable has no actual initial consonant, the null initial ㅇ *ieung* is used as a placeholder. 언어학적으로 플레이스 홀더란, 영어의 “It's a pity she left” 가주어 it처럼 문장 속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 자체의 뜻은 없는 것을 말한다.

음 표기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초성, 중성, 종성이 다 그 당시의 현실음을 표기한 음소일 수는 없다. 그러면, 현실음이 반영된 음소의 결합이 곧 음절이라면 음소설정에서 제거된 훈민정음 문자의 결합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구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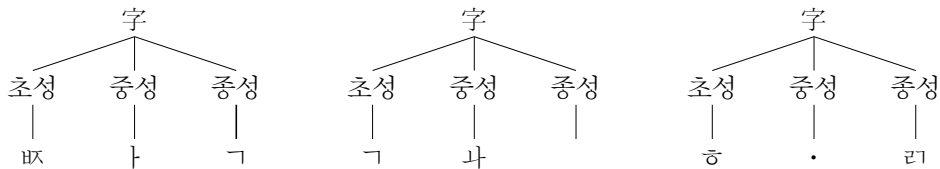
훈민정음 합자해에 “初中終三聲合而成字”에 성자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강신항(1990:109)은 “초성자·중성자·종성자를 각각 字素처럼 생각하고, 이들이 합해져 하나의 문자단위(文字單位), 즉 음절문자(音節文字)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의 ‘字’를 하나의 글자 즉, 한자(漢字)가 한 음절을 이루는 한자를 의식해서 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자의 종합을 문자군으로 보아 임시로 李基文(1963 : 63)은 “初中終聲에의 三分法이란 것이 音節을 根本으로 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그들은 言語의 모든 言述의 線條性(linéarité)에 文字를 그대로 對應시키지 않고 그 言述을 다시 音節로 分析해서 그 各 音節에 一定한 文字群을 對應시켰던 것이다. 이런 文字群을 우리는 임시로 ‘音節合字’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합자라는 말은 훈민정음 예의편(例義篇)의 ‘凡字必合而成音’과 해례편(解例篇)의 합자해(合字解)에서 취한 것이다. 姜豪天(1982:28)은 “音素의 結合이 ‘音節’이라면 文字의 結合은 ‘字節’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나타냈다. 李丞宰(1989:228)는 “字’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째는 ‘正音二十八字’의 ‘字’에 해당하는 용법으로서의 字素單位를 지칭하는 것이고 둘째는 ‘初中終三聲 合而成字’의 ‘字’에 해당하는 용법으로서의 合字된 이후의 音節單位(?)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첫 번째 용법의 ‘字’만을 생각해 왔으나 두 번째 용법의 ‘字’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초, 중, 종성자’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초, 중, 종성자’가 결합된 하나의 글자를 의미한다. 고영근(1993:51)은 한글의 개별자소를 ‘낱자’로, 자소가 묶여 이루어진, 음절에 대응되는 자소 바로 위의 단위를 ‘글자’로 보았다.¹¹⁾

11) 자소부의 구성요소

가. 한글/우리글 cf. 우리말의 소리

이승재(1991:187)는 “聲의 層列(tier) 밑에 字의 층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ㅍ’, ‘과’, ‘흙’의 음절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ㅍ’, ‘과’, ‘흙’의 음절 구조

위의 그림은 字[音節]와 聲[初中終聲의 ‘聲’] 그리고 音[單位音, 音素]의 세 가지가 계층구조를 형성하면서 각각 독자적인 층렬을 이룬 그림이다. 이 세 층렬을 각각 ‘字層, 聲層, 音層’을 제시하였는데, 字층이 ‘초, 중성, 종성’의 자소들이 결합된 자소부의 설정 단위일 것이다. Dürscheid(2006:213-214)는 쓰기음절(Schreibsilbe)이라는 개념은 “형태소가 아니며 그 범위가 대략 음절 범위에 상당하는 자소적 구조 단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절을 음성언어의 음소들의 결합인 음절과 대응되는 것으로, 문자언어에서 자소들의 결합을 ‘자절(字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자절의 결합 방식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음소 분석을 먼저 했다. 우리말의 음소 분석은 중국 음운학에서부터 출발했다. 실제로 중국 음운학이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이 모두 ‘음절’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룩된 것이었으나, 훈민정음은 음절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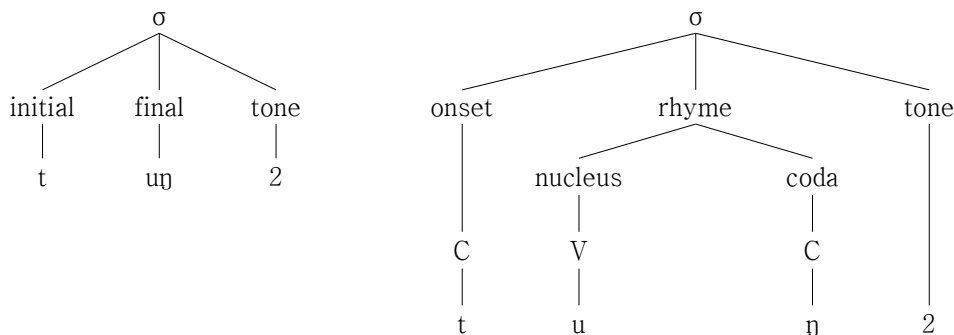
나. 자소 cf. 음소
 다. 글자 cf. (음절)
 1) 묶어쓰기 2) 형태 밝히기
 라. 띄어쓰기 cf. 휴지
 마. 구두기호 cf. 어조
 바. 새줄잡기 cf. 목소리의 바뀔

중국어와 우리 국어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 a. 중국음운학 : 聲(I), 韻(MVE)(IMVE^{/T}: I-聲, MVE-韻)
 (I: Initial - 聲, M: Medial-頭韻, V: Vowel-韻腹, E: Ending-韻尾, T-Tone-聲調)
 b. 훈민정음: 初聲, 中聲, 終聲, 聲調

예를 들면 ‘東 德紅反’ 혹은 ‘東 德紅切’과 같이 ‘동(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덕(德)’과 ‘홍(紅)’을 나란히 써놓고 ‘덕(德)’에서 성모 /t/만 취하고 ‘홍(紅)’에서 운모 /uŋ/만 취하여 그 둘을 합쳐서 /tuŋ/이 된다는 뜻으로 ‘절(切)’을 밑에 붙여놓은 것이다

이것의 반절과 음절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東’의 반절 및 음운 구조

이것은 중국의 음절을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단음절인 한자음을 분절음으로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나누는 2분체계로 나누었고, 초분절음인 성조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자들은 분절음을 중국음운학의 2분체계와는 달리 운모에서 또다시 끝자음인 운미(韻尾)를 분리해 내어 성모와 동일한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곧 성모인 초성과 운미인 종성을 동일한 음소로 확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모를 초성으로, 운미를 종성으로, 운모의 나머지 부분을 중성으로 하는 3분체계를 확립

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어는 성조(tone) 언어이다. 성조 언어란 음높이(pitch)의 변화가 단어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성조를 자음과 모음 이외에 세 번째 발화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한어병음에서는 성조를 모음 위에 표시하며 성조는 모음에 내재된 요소가 아니라 음절(syllable) 전체 자질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훈민정음 해례의 본문에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 음운론에서의 초분절음소, 또는 운소에 해당되는데 반하여, 이것을 15세기 국어에서 ‘운자소’로 부르려 한다. 이것은 현대 국어 운소(韻素)를 직접 표기한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어서 훈민정음의 방점은 특이한 존재라 할 만하다.

즉, 훈민정음의 자질은 1차 자소와¹²⁾ 2차 자소를¹³⁾ 모두 표기한 혼합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차 자소의 결합 방식은 3분법을 채택하고, 2차 자소인 운자소는 1차 자소가 결합한 글자의 왼쪽에 방점으로써 표시했다.

12) 1차 자소는 단어를 형성하는 일련의 철자법을 구성하는 철자자소들로 문자(文字)로 이루어진 자소를 말하고, 2차 자소는 단어를 형성하지 않는 자소로서 시각적으로 의미를 분화시키는 변별적 기능을 하는 자소이다.

Mountford(1990:704)는 자소론의 중심이 되는 철자법을 구성하는 자소들을 문자의 특성에 따라 더욱더 세분하였다.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문자가 형성되는 경우¹⁾로 ‘형태소적 자소(morphemic grapheme)’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하나의 음절을 표시하는 음절문자인 일본의 ‘가나(假名)’의 경우를 ‘음절적 자소(syllabic grapheme)’로 나누고, 영어와 한국어를 ‘음소적 자소(phonemic grapheme)’로 나누었다.

13) 2차 자소는 일정한 형태의 ‘부호자소’와 아무 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공자소’로 나누려 한다. 2차자소는 1차자소로 형성된 단어와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의미의 변별기능을 한다.

4. 자절의 구조

초성, 중성, 종성을 묶어서 쓰는 成字法(合字法)은 대개는 한자와 관련지어 생각해 왔다. 이승재(1991:188-189)에서는 ‘字倣古篆’은 음절 단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견해를 택하면서, 제자의 결합 양상이 옛 전서체와 비슷하다는 설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전서체는 정방형(正方形)이면서 상하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정음의 음절 자형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李觀洙(1987:58)는 “訓民正音이나 八思巴文字는 字形에 類似點이 많으며, 다 같이 方形으로 古篆과 비슷함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면 파사파 문자와의 관련성에 언급을 하였고, 金完鎭(1984:15-16)은 여진문자의 서법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제자와 한자 제자 사이의 결합의 상호관련성을 한자자 소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한자의 구성 원리가 훈민정음의 ‘자절’의 구성 원리의 전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 제자와 한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훈민정음 제자들의 결합인 ‘자절’의 구성에 반영된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시한자의 자형은 사물의 모양에 따라 형이 결정되므로 일정한 틀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글자들을 대량으로 서사(書寫)하게 되면서부터 행관(行款)¹⁴⁾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 문자의 구조 형식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가로로 퍼진 글자들이 세로로 선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별 자형이 점차 네모 덩어리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한자학에서는 방괴화(方塊化)로 설명하고 있다. 한자의 서사 습관이 행관의 개념이 생기고 난 뒤부터 ‘세로쓰기(縱書)’ 방식이었기 때문이고, ‘세로쓰기’의 방식의 기원은 갑골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합체자는 적게는 두 개소의 결합에서부터 많게는 7-8개의 자소들이 결합하

14) ‘行款’이라 함은 한자의 배열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글자의 배열순서와 行의 배열次序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추현 2006:259).

여 구성되는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의부로 구성된 회의자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부와 한 개의 음부로 구성된 형성자 등 두 개의 유형이 있다.

합체자를 구성하는 자소들의 배치문제에 관해서, 합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성자에 있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이미 당대에 ‘左形右聲, 右形左聲, 上形下聲, 上聲下形, 外形內聲, 外聲內形’(박추현:2006:261) 등의 기본적 원칙이 제시된 바 있어서, 의부의 위치만 결정되면 그에 따라 상대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중 좌우결합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이 상하결합 방식의 글자가 다음을 이루고 있다.

박추현(2006:277-282)은 한자 자소의 개별 한자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좌우와 상하결합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결합방식
좌우	1. 二合式 2.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또는 양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삼합식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4. 三合式 5.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하	1. 二合式 2.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양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4.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5.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다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6.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양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7. 삼합식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표 2> 한자 자소 결합 유형

훈민정음의 ‘자절(字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갖추게 해 준 것은 예의(例義)의 부서(附書) 규정과 해례 합자해의 규정이다.

(2) · 一 ㄱ ㅌ ㅍ ㅈ ㅊ 附書初聲之下, | ㅓ ㅕ ㅗ ㅛ ㅜ 附書於右.(例義)

(3)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 ㄱ 在 ㅈ 上. 業字 ㅈ 在 ㅈ 左之類.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 ㄱ ㅌ ㅍ ㅈ ㅊ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 ㅓ ㅕ ㅗ ㅛ ㅜ 是也. 如吞字 · 在 ㅌ 下. 卽字 ㅈ 在 ㅌ 下. 侵字 | 在 ㅌ 右之類.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 ㅈ 在 ㅈ 下. 業字 ㅈ 在 ㅈ 下之類.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 · ㅈ 爲地. ㅈ 爲隻. · ㅈ 爲隙之類. 各自並書. 如諺語 · ㅈ 爲舌而 · ㅈ 爲引. ㅈ 爲我愛人而 ㅈ 爲人愛我. ㅈ 爲覆物而 ㅈ 爲射之之類.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ㅈ 爲琴柱. ㅈ 爲炬之類.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ㅈ 爲土. ㅈ 爲釣. ㅈ 爲酉時之類.(合字解)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훈민정음의 성자법은 3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절인 말소리를 초, 중, 종성으로 분석했지만, 이 음절은 초, 중, 종성의 낱소리로 분리하여 소리낼 수 없으므로, 소리를 이루려면 이 낱소리들이 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소리 곧 음절을 이루는 성음법(成音法)이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의 ‘예의’(例義)에 “凡字必合而成音”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초, 중, 종성이 소리를 이루려면 삼성(三聲)이 합해야 한다는 성음법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음절에 대한 훈민정음의 이상적인 구성 방법은 ‘凡字必合而成音’에 입각하였다. 그런데, 훈민정음 예의편의 ‘凡字必合而成音’이란 규정은 예를 들면, ‘世宗宗御製’에서 ‘世宗’, ‘御製’, ‘製’처럼 실제로 발음되지는 않더라도 종성에까지 [ㅇ] 표기를 해서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야 성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종성해에는

(4)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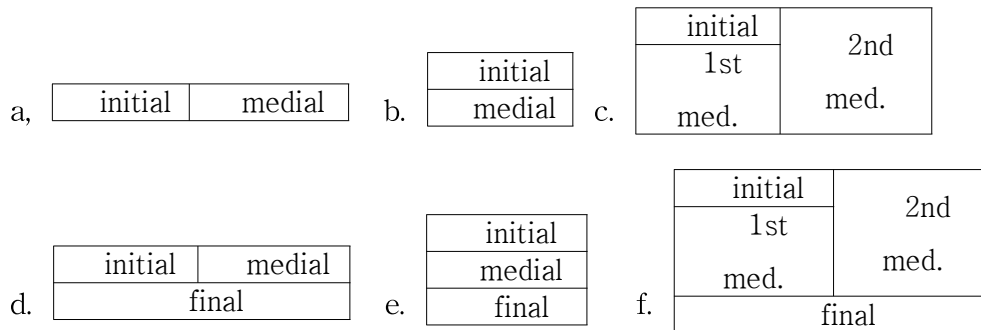
라 하여 예를 들면, “나랏말싸미”에서 ‘나’, ‘싸’, ‘미’처럼 반드시 ‘ㅇ’ 종성은 쓰지 않아도 초성과 중성만으로 성음이 된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의 문자론적 성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절문자(音節文字)적 성격을 말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또한 ‘ㅇ’ 즉 ‘欲字初發聲’을 음가(音價)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운 데도 이를 초성체계에 넣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초성에 중성이 연결되어야만 소리가 난다는 음절 중심의 문자 인식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훈민정음은 음절문자의 요소를 갖추기 위하여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초성 위치에 아무 음가도 없는 ‘ㅇ’을 채워 넣는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따라서, 훈민정음의 성자의 규정은 삼합식이 원칙 규정이고, 이합식이 국어 음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글자의 구조를 선형적인 연속성으로 고찰하였지만, 정방형의 구조로 파악한 것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Wikidepia에서는 받침이 없는 것과 받침이 있는 글자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림 3> Wikidepia의 한글의 글자 구조

또한, Taylor(1995:216-217)는 자모의 배열 순서와 글자의 구조를 별개로 보고 있다. 자모의 배열 순서는 선형적으로 파악하였고, 자절 구조는 정방형의 구조로 파악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5) 김상태·김경열(2012)에서는 이것을 한자자소론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특정한 자소와 결합했을 때만 일정한 의미를 갖는 ‘형체자소’로 구분하여 보았다.

16) Coulmas(2003:160)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zero letter is a question of continuing debate, but the common underlying principle of consonant letter formation is clear enough. A minimal graphic modification corresponds to a minimal phonological distinction.

Alphabet Letter C - V - C - CC			Syllable Block		Sound
			Block	Structure	
ㅇ	ㅏ		오	(C) V	o
ㄱ	ㅑ		교	C V	kyo
ㄴ	ㅓ	ㄴ	눈	C V	nun
ㅎ	ㅡ	ㅈ	훈	C V	hũlt'
ㅇ	ㅗ		아	CC (C)V	a
ㅍ	ㅛ	ㅇ	방*	CV C	pyang
ㄷ	ㅜ	ㄹ	똥	CV CC	ttölp
ㄱ	ㅣ	ㄹ	꺾*	CV CC	kkilp

* not used in the Korean language

<표 3> Han'gŭl Letters Packaged
in Syllable Blocks(Taylor, 1995:217)

그러면, 한자자소론적인 측면에서 훈민정음 및 창제 당시의 자절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소의 좌우결합형이다.

제1형은 초성+중성인 C+V형이다.

예) 나랏말싸미

자모의 배열은 C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
---	---

제2형은 초성+중성인 C1C2+V형이다.

예) 짜(合字解)

자모 배열은 C1C2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V
----	----	---

제3형은 초성+중성인 CC+V형이다.

예) 괴여(合字解)

자모 배열은 CC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C	V
---	---	---

제4형은 초성+중성인 C+V1V2형이다.

예) 관(合字解)

자모배열은 CV1V2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1	V2
---	----	----

제2형부터 제4형은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이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제5형은 초성+중성인 C1C2C3+V형이다.

예) 빠다(釋譜詳節 13:10)

자모배열은 C1C2C3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C3	V
----	----	----	---

제6형은 초성+중성인 C1C2C3+V1V2형

예) 빠(合字解)

자모배열은 C1C2C3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C3	V1	V2
----	----	----	----	----

제7형은 초성+중성인 C+V1V2V3형이다.

예) 꽤(合字解)

자모배열은 CV1V2V3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V1	V2	V3
----	----	----	----

제5형부터 제7형은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훈민정음 자절 구조 중 좌우결합식에는 이합식만이 나타나며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또는 양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으로, 자소의 상하결합형이다.

첫째, 이합식의 경우이다.

제1형은 초성+중성인 C+V형이다.

예) 소다(合字解)

자모배열은 C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

제2형은 초성+중성인 CC+V형

예) 쏘다(合字解)

자모배열은 CC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C
V	

제3형은 초성+중성인 C1C2+V형이다.

예) 뽏다(月印釋譜 99)

자모배열은 C1C2V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V	

상하결합의 이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이합식이지만 한쪽이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으로 상하결합의 삼합식이다.

제1형은 초성+중성+종성인 C+V+C형이다.

예) 즐겹다(月印釋譜 2:5)

자모배열은 CVC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
C

제2형은 초성+중성+종성인 C1+C2+V+C형이다.

예) 썰다(釋譜詳節 11:25)

자모배열은 C1C2VC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V	
C	

제3형은 초성+중성+종성인 C1C2C3+V+C형이다.

예) 빔(合字解)

자모배열은 C1C2C3VC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C3
V		
C		

제4형은 초성+중성+종성인 C+V+C1C2형이다.

예) 블다(월인석보 1:23)

자모배열은 CVC1C2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	
C1	C2

제5형은 초성+중성+종성인 C+V+C1C2C3형이다.

예) 뽕 빼(합자해)

자모배열은 CVC1C2C3형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		
V		
C1	C2	C3

위의 경우는 3합식으로 5가지 형태가 나타나지만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으로 좌우결합과 상하결합이 합쳐진 형태이다. 이 형태는 삼합식만이 나타난다. 제1형 초성+중성+종성이 결합된 형태로 C1C2+V+C형이다.

예) 쫄비(月印釋譜 1:17)

자모배열은 C1C2VC이며, 자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C1	C2	V
C		

제2형 3자합 어두초성+중성+종성인 C3C2C1+V+C형이다.

예) 뽕(隙)(杜詩諺解初 7:28)

자모배열은 C1C2C3VC이며, 자절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C3	V
C			

제3형 초성+중성+종성이 결합된 형태로 C1C2+V+C1C2형이다.

예) 뽕다(釋譜詳節 19:20)

자모배열은 C1C2VC1C2이며, 자절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C1	C2	V
C1	C2	

좌우결합과 상하결합이 합쳐진 형태는 3합식으로 나타난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두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따라서, 훈민정음과 창제 당시의 자절 구조는 정방형으로 좌우와 상하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나타난다. 자소의 결합유형은 ‘좌우결합, 상하결합, 좌우와 상하 결합이 합쳐진 형태’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면 결합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결합방식
좌우	1. 기본적으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또는 양쪽 자소가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이합식이지만 한쪽 자소가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하	1. 기본적으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이합식이지만 한쪽이 다시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4.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5.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좌우 + 상하	1.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2.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한쪽이 삼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3. 기본적으로 삼합식이지만 두쪽이 이합식으로 구성된 경우

<표 3> 훈민정음의 자소 결합 유형과 결합 방식

2차 자소인 방점법은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5) 諺語平上去入. 如𦵏爲弓而其聲平. ·돌爲石而其聲上. ·갈爲刀而其聲去. 𦵏爲筆而其聲入之類.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與간爲柱 넙爲脅 或似上聲 如:낱爲穀 :깎爲繪 或似去聲 如:뭉爲釘 ·입爲口之類 其加點則與平上去同(合字解)

중국어는 흔히 단음절 언어로 불린다. 단음절 언어란 거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위의 설명은 국어의 1음절 단어로써 성조와 방점법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중국어는 하나의 자형이 곧 형태소이고, 1음절로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성조를 지니고, 대부분의 형태소가 단음절이다. 중세국어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방점은 중국의 음운학에서 말하는 성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조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중세국어에 나타난다. 즉 ‘부터(佛), 다리(橋), 만다·히(杖)’ 등은 앞의 두 단어의 성조가 ‘평성·평성’이고 나머지 한 단어의 성조가 ‘평성·평성·거성’인데, 두 단어 ‘부터’와 ‘다리’가 문장에 쓰여 거성인 주격

조사 ‘·이(ㅣ)’와 통합하면 ‘부터·이’는 ‘부:테’로, ‘드리·이’는 ‘드:리’로 되고 ‘막다·히’는 어형단축에 따라 ‘막:대’로 된다. 이와 같은 예들은 바로 ‘평성·거성’이 복합되면 상성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성조는 사성이 서로 다른 성조인데 반하여 국어의 성조는 상성(和而擧)이 평성(和)과 거성(擧)의 복합(並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성조체계는 두 성조소(toneme) 곧 저조(低調)의 ‘평성’과 고조(高調)의 ‘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성은 이 성조소가 결합된 복합성조인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성조체계는

- (6) 去聲 : 高調
平聲 : 低調

임을 알 수 있다. 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운자소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3) 손(客), ·손(手) ; ·솔(松), :솔(刷); 발(足), :발(簾); 서·리(霜), ·서리(間);
가·지(種), ·가지(枝), ·가·지(韉)

4. 결론

문자는 시각적 기호를 통하여 인간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관습적·규약적 체계를 말한다. 인간의 일차적인 의사소통방식을 말(speech)이라고 한다면 문자는 이차적인 의사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음성언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문자언어의 연구는 아직 주요 언어학 분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특성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문자언어를 음성언어의 2차적 산물이 아닌 독립된 언어 체계로 문자체계의 기본 단위와 결합에 대한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자소론적인 관점으로 표기법의

제반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이 글은 자소론적인 관점에서 훈민정음 자소의 결합 방식과 구조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절(字節)’을 음성언어의 음소들의 결합인 음절과 대응되는 것으로, 문자언어에서 자소들의 결합을 ‘자절(字節)’로 정의하였다.

둘째, 훈민정음 자절의 결합방식을 분절음을 표기한 1차 자소와 초분절음, 즉 성조를 표기한 2차 자소를 표기한 ‘운자소’와 결합된 방식임을 밝혔다.

셋째, 훈민정음의 자절 구조를 한자자소론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한자의 구성 원리가 훈민정음 ‘자절’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 전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한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훈민정음 제자들의 결합인 ‘자절’의 구성에 반영된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 자소의 결합은 상하좌우가 대칭되는 정방형의 구조이다. 결합 유형은 ‘좌우결합’과 ‘상하결합’이 결합 방식에는 ‘이합식’과 ‘삼합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자소의 결합 유형은 ‘좌우결합’, ‘상하결합’, ‘좌우+상하결합’의 세 형태로 나타났으며, 결합방식은 이합식과 삼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앞으로, 좀 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자료적인 차이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단위에 대한 측면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더 언어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자소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쓰기 교육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姜信沆(2003), 《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姜昶錫(1995), 한글과 한글 표기법 이론의 체계화에 대하여, 《國語學》 25, 165-197.
- 姜昶錫(1996),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과제,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고영근(1991), 언어의 문자화와 관련된 문제,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89-98.
- 高永根(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一志社.
- 孔在錫(1985), 漢字字素論, 《東洋學》 15, 155-170.
- 金敏洙(1999), 문자의 최소가치차이(最小可知差異), 《새국어소식》(국립국어원) 6월호.
- 김상태(2005), 15세기 국어의 자소체계 연구-「訓民正音」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1-23.
- 김상태·김경열(2012), The Formal Grapheme <ㅇ> in Middle Korean, 《인문과학연구》 32, 85-104.
- 김성규(2001), 음성 언어 층위와 문자 언어 층위의 위상에 대한 연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30, 65-88.
- 金完鎭(1984), 訓民正音 創製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 5, 1-19.
- 金載福(1972), Grapheme과 Phoneme의 對應, 《研究論文集》(효성여자대학교) 10, 307-319.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석홍(2009), 漢字 字素 정의에 대한 再考-基本字素를 중심으로, 《中國言語研究》 30, 271-290.
- 박성중(2002), 문자 연구 50년, 《국어학연구50년》, 혜안, 285-325.
- 朴秋鉉(1996), 漢字의 字素 연구, 《中語中文學》 19, 83-109.
- 박추현(2006), 《漢字字素論》, 경상대학교출판부.
- 신지영(2004), 음성코퍼스를 활용한 국어 연구, 《한국어학》 23, 23-47.
- 申昌淳(1992), 《國語 正書法 研究》, 集文堂.
- 안명철(2005),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기호론, 《國語學》 45, 213-241.
- 안명철(2006),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六書), 《우리말글》 38, 43-58.
- 安秉禧(1990), 訓民正音 制字 原理에 대하여, 《姜信降 教授 回甲紀念 國語學論文集》, 135-145.
- 俞昌均(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震檀學報》 29·30, 371-390.
- 李觀洙(1987), 《朝鮮朝의 語文政策 研究(改訂版)》, 弘益大學校 出版部.
- 李基文(1973),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敦柱(1979), 《漢字學總論》, 博英社.
- 李丞宰(1989), 借字表記 研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研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203-239.

- 李丞宰(1990), 子音體系 및 中和,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9-19.
- 李丞宰(1991), 訓民正音의 言語學的 理解, 《언어(한국언어학회)》 6, 181-211.
- 이한섭(1989), 《일어학개설》, 한신문화사.
- 이향천(1998), 문체는 곧 의미의 용이다, 《語文研究》 30, 289-302.
- 李賢熙(2003), 訓民正音 研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593-626.
- 張素媛(1986), 文法研究와 文語體, 《韓國學報》 43, 191-212.
- 秦光豪(1997), 《文字學概論》, 도서출판 民族文化.
- 崔世和(1987), 《國語學論攷》, 東國大學校出版部.
- 홍윤표(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國語學》 46, 53-66.
- Ahn, Pyong-Hi(1997),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invention of the Korean alphabet. In: Young-Key Kim-Renaud (ed.), *The Korean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89-105.
- Coulmas, F.(1996),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Writing Systems*, Massachusetts: Blackwell.
- Crystal, D.(198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ürscheid, Christa(2006), *Einführung in die Schriftlinguistik*,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김종수 옮김(2007), 《문자언어학》, 유로.
- Kim, Sang-Tae(2008), The System of Graphemes in the *Hunminjeongeum*, Inquires into Korean Linguistics 3, 305-317.
- Kim, Sang-Tae(2012), The Graphemic Correlation between Korean Alphabet and Chinese Character,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4, 123-137.
- Ledyard, G. K.(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Seoul: Singu Publishing Co..
- Lin, Yen-Hwei(2007),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엄익상 · 이옥주 · 손남호 · 이미경 역(2010), 《중국어 말소리》, 역락.
- Saussure, Ferdinand de.(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Wade Baskin. New York: The Philosophical Library.
- Taylor, I. and M. Martin Taylor(1995), Writing and Literacy i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ttp://en.wikipedia.org/wiki/>